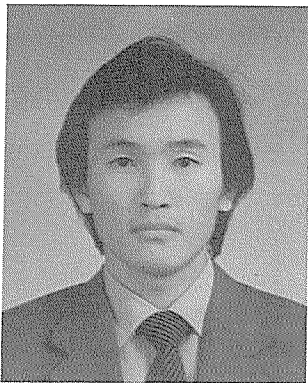


석유위기 20년의 회고

역사와 시대구분

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역사학의 최종 귀결점은 시대구분의 문제라고 한다. ○○시대, ××시대 또는 △△기 라고 하는 명명이 일견 간단한 문제인 듯이 보이나, 사실은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고뇌, 격론의 결과로 그런 이름들이 붙여진 것이다.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역사학의 전혀 문외한인 입장에서 무어라 견해를 논할 수는 없으나, 간단히 어느 한 사건이나 계기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시대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만은 짐작할 듯하다. 시대를 나누는 일은 그 분절의 앞과 뒤를 확연히 구분짓는 구조적인 성격의 변화를 간취해 내는 일인 동시에 앞뒤 각각의 시기를 특징짓는 최적의 어휘로 시대명을 붙여줘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역사가 우연한 한 계기에 의해서 또는 어느 특출한 영웅에 의해서 모습을 바꿔가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끊임없는 인과관계의 연속이며, 이런 의미에서 역사에는 언제나 면면한 통시성이 관류한다.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오래전부터 시대변이의 맹아가 뿌러지는 것이 상례이며, 그 싹이 꽃을 피우기까지는 과도기 또는 전환기라는 과정을 겪게 된다. 게다가 시대변천의 국면에 따라서, 전개방법에 따라서, 같은 시대라도 지역적 편차에 따라서 역사의 전개되는 모습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시대를 구분하는 일이 절대 용이한 일이 아니며, 과연 시대구분의 문제가 역사학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언급이 그럴 듯도 하다.



이 현 섭

<유공 원유·제품기획팀 과장>

제 4차 중동전쟁과 석유위기

지난 10월 6일은 제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지 20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1973년 10월 6일 오후 2시 이집트, 시리아 양국군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이집트 공군의 대이스라엘 기습은 성공하여, 1956년(제 2차 중동전쟁)과 1967년(제 3차 중동전쟁)의 전쟁으로 잃어버린 아랍의 땅과 자신감을 일시적으로나마 되찾았다. 이집트 육군은 수에즈운하의 도하에 성공, 운하 동측에 구축되어 있던 이스라엘군의 진지를 기습했다. 한편 공군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군의 전차부대와 기계화 보병부대는 골란고원을 향해 진격했다. 이집트·시리아 양국군은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으나, 미국의 막대한 무기원조를 받은 이스라엘은 점차 전열을 가다듬어 반격에 나선다. 시리아전선에서는 이스라엘군이 골란고원을 돌파, 시리아의 수도 다마

스커스 근교까지 육박했다. 이어 시나이전선에서는 수에즈운하의 역도하에 성공, 시나이반도에 남아 있던 이집트군의 퇴로를 차단했다.

이스라엘군이 수에즈운하의 역도하에 성공하여 시나이반도의 전황이 이집트에 불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직후인 10월 17일, OAPEC(아랍석유수출국기구) 가맹 10개국은 쿠웨이트에서 각료회의를 개최, 동년 9월의 산유량을 기준으로 원유생산량을 매월 5%씩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OAPEC 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은 「아랍을 지원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점령지로부터 철수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에는 종래대로 석유를 공급한다」고 하여 석유의 무기화를 선언했다.

OAPEC 회의는 그해 11월 3~4일에도 개최되어, 이스라엘을 원조하고 있던 미국과 네덜란드에 대해 전면적인 석유수출 금지를 결정했다. 아랍의 석유전략은 원유가격의 인상과 병행하여 행해져 한층 큰 효과를 보였다. 10월 16일 OPEC(석유수출국기구) 석유장관회의에서 결정한 70% 가격인상을 필두로 D-D 판매가격 앙등을 거쳐 그해 12월 또다시 가격의 대폭인상이 실행되었다. 이로써 원유가격은 1년동안에 약 4배로 인상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가 석유소비국에 미친 충격은 대단히 컸다. 석유소비국 경제는 완전히 혼란상태에 빠지고 등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물론 전 공산품의 물가가 급상승했으며, 편승가격인상을 우려한 매점매석,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 이듬하여 제 1차 석유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세계경제에 공전의 파장을 던진 석유위기가 발생한 지 지난 10월로 꼭 20년이 되는 셈이다.

어느 한 사건이 있고 나서 10년 또는 20년이 흘렀다고 해서 8년째 또는 19년째에 비해 특별히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열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난 탓에 십진법에 길들여진 우리들은 십단위를 기준으로 나름대로 시간의 분절을 만들어 그날을 회상하고 그해를 기념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 4차 중동전쟁 그리고 제 1차 석유위기가 발생한지 꼭 스무해가 되는 이달을 맞아 지난 20년간을 회고해 보고 오늘의 현실을 되새겨 보는 일이 그리 무의미하지만은 않으리라.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시대를 구분하고 명명하는 일이 매우 지난한 작업인 동시에 지나친 단순화가 가져올 오해의 소지가 저어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석유위기를 전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세월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석유시장의 구조적 변동과 OPEC 등 국제석유시장 주요 PLAYER들간의 역학관계 변화를 기준으로 나름대로의 시대구분을 시도해 보는 일이 금후 석유수급의 장래를 가늠하는 데에도 일조가 되리라 생각된다.

메이저의 시대

인류의 역사상에 석유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약 6000년경으로 소급된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의 범람을 앞두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는 배의 밑창으로 불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청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에서 석유의 채굴이 시작된 것은 1859년 에드윈 L. 드레이크가 펜실베이니아의 타이터스빌에서 대량의 석유를 발견하면서부터이다. 이로부터 시작된 소위 「오일 러시」는 미국 동부, 서부,

역사가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또는
어느 특출한 영웅에
의해서 모습을
바뀌가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끊임없는
인간관계의
연속이며, 이런
의미에서 역사에는
언제나 면면한
통시성이 관류한다.

어느 한 사건이
있고나서 10년 또는
20년이 흘렀다고
해서 8년째 또는
19년째에 비해
특별히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텍사스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1870년에 미국 록펠러에 의해 스탠다드오일社가 설립되고 1879년에는 노벨형제가 러시아의 바쿠에서 유전을 발견하였다. 미국에서 석유산업이 급속히 성장할 무렵, 유럽에서는 이에 대항하여 1890년에 로얄 더치가 설립되고 1907년에는 영국의 셸과 제휴하여 로얄더치셸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설립된 주요 강대국의 메이저들이 1973년 제 1차 석유위기가 발생할 때까지의 일세를 풍미하며, 세계석유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한 이 시기를 다소 막연하게나마 메이저의 시대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OPEC의 시대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고부터 제 1차 석유위기가 발발한 1973년까지의 시기를 메이저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 후 1979년 2월 호메이니에 의한 이란 잠정혁명정부가 수립되어 제 2차 석유위기가 발생한 때까지의 시기는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시대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OPEC의 시대는 두차례의 석유위기로 전후 획을 그을 수 있으나 그 짝은 이미 이전의 메이저의 시대에 뿌려졌다. 메이저가 좌지우지한 시기는 산유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의 역사에 다를 아니다. 메이저의 산유국 수탈에 가장 먼저 도전장을 던진 것은 멕시코였다. 멕시코는 1938년 석유회사의 국유화를 선언하였으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그 뒤를 이었고, 중동의 산유국에서도 석유자원 국유화의 기운이 높아갔다.

1970년에 총 세계생산원유의 61%를 메이저가 차지하고 산유국 정부의 비중은 불과 6%에 불과하던 것이 1979년에는 각각 25%, 55%를 점하게 되었다. 그 후 등비증의 역전현상은 더욱 진전되어 1989년 현재 메이저는 생산원유의 16%를 소유하고 있는 데 비해 산유국은 65%의 소유권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석유제품 판매비율의 측면에서 보면 1970년에 메이저가 50%, 산유국 국영석유회사가 9%를 차지하였으나, 1979년에 각각 40%, 18%를 거쳐 1989년에는 메이저가 39%, 국영석유회사가 30%의 판매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메이저가 구축한 철용성에 산유국이 하나 둘 도전장을 내밀던 이 시기는 제 3세계 각지에서 신생독립국이 등장하고 미국의 세계경제지배력 즉 PAX AMERICANA 가 기반침하의 전조를 보이기 시작한 시기였다. 산유국의 석유에 대한 지배권 회복요구의 결정체로 등장한 것이 OPEC이다. 1960년 9월 9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세계석유수출량의 80%를 차지하는 5대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웨이트, 이라크) 대표들이 모였다. 당초 메이저들은 OPEC의 결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구조, 사회구조, 종교적 성향을 지닌 각 나라가 이해관계를 쉽사리 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결성 10여년 이후 OPEC는 석유위기를 계기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최대 최강의 국제카르텔로 성장했다. OPEC에 대해서는, 이 기구가 각 가맹국의 자발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이외에 별도로 담합조항의 강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결속력에도 많은 한계가 있어 과연 카르텔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에도 국제석유시장을 논할 때 OPEC는 빼놓을 수 없는 PLAYER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점하고 있다. 금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MMC(각료감시위원회)를 개최한 OPEC에는 현재 총 12개국이 가맹하고 있다.

비단 석유 뿐만 아니라 어느 재화를 막론하고도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힘의 균형이 깨질때, 시장은 교란되기 마련이다. 그중에서 특히 시장의 교란이 단순한 혼란의 차원을 넘어 위기라고 불리우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상황이 구비되어야 한다. 우선 첫째는 충격의 크기 즉, 가격등락의 폭이다. 구체적인 등락의 정도에 관한 임계치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논자에 따라서도 상이하겠지만, 적어도 수배이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파장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는 충격의 급속성 여부이다. 아무리 가격이 두배, 세배로 뛰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면 이를 위기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로는 단순한 가격의 상승이 아닌 공급물량의 절대적인 부족을 동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1970년대에 경험한 두차례의 오일쇼크는 석유위기로 불리울 만하다. 이러한 위기는 공급물량의 감소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수요측면에서도 소비가 급상승기에 있거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1980년 9월부터 8년간이나 지리하게 계속된 이란·이라크전쟁, 그리고 1990년의 페르시아만 전쟁이 석유위기로 진전되지 못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수요측면의 조건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 4차 중동전쟁과 이란의 이슬람혁명 은 석유위기를 촉발시킨 계기는 되었을지언정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 점은 향후 있을지도 모를 제 3차 석유위기의 개연성을 검토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믿는다.

석유 SECURITY의 시대

OPEC의 시대, 즉 석유위기의 시대는 소비국의 입장에서 보면, 석유 또는 에너지 안정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강조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양차 석유위기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 SECURITY의 시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제 1차 석유위기 직후 선진제국은 IEA(국제에너지기구)를 발족시켰다. IEA는 1974년 11월 8일 OECD 가맹국들에 의해 채택된 국제에너지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OECD기구내에 설립된 단체이다. IEA는 20여개 가맹국간의 종합적인 에너지협력 및 계획을 수행하고 산유국·소비국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설립목표로 하고 있다. IEA의 주도로 추진된 선진국의 석유비축사업은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후의 공급부족사태를 해결함에 있어 그 효용성을 여실히 증명하였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석유소비국들은 양차 석유위기의 쓰라린 경험을 겪은 후 에너지소비절약과 탈석유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석유의 중등 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구체화하였다. 뿐만 아

지난 10월 6일은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지 20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1973년 10월 6일
시리아·이집트군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제4차
중동전쟁은 제1차
석유위기를
촉발하여
세계경제를 일대
혼란에 빠뜨렸다.

나라 원자력, 천연가스,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석탄의 활용에도 다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73년 세계 1차에너지소비중 석유가 약 절반(49%)을 차지하던 것이 10년후인 1983년에는 44%, 다시 1992년에는 40%선으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1974년초 에너지정책을 이른바 「主炭從油」로 다시 전환하였으며, 한일대륙붕협정에 서명하고 제주도 남방 한일공동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에 착수했다. 한편 1975년 10월에는 TV 방영시간을 단축하는 등 에너지소비 절약운동을 본격 전개하였다. 1978년에는 동력자원부가 설립되었으며, 뒤이어 1978, 79년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각각 제정하는 등 법제면의 정비작업도 진행되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대한석유협회가 발족한 것도 이 무렵 1980년의 일이다.

자유경쟁의 시대

메이저의 시대, OPEC의 시대, 석유 SECURITY의 시대를 거쳐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국제석유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질적인 변화과정을 겪게 된다. 그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를 자유경쟁의 시대라 부르려고 한다. 우선 특징으로 들수 있는 것이 OPEC의 성격변화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OPEC는 결성초기 메이저와의 교섭단체로 기능하면서 석유수입의 확보를 주목표로 하여 활동하였으며, 그후 원유 공시가격 인상과 석유산업 국유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OPEC는 1973년 10월 메이저에 대항하여 원유 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가격카르텔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이래 1975년 10월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GSP를 설정한 이후에도 가격카르텔로서 막강한 위력을 행사했다. OPEC의 실제적인 힘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다름아닌 사우디아라비아의 SWING PRODUCER 역할이었다.

이와 같은 OPEC의 역할은 지난 1982년 3월에 가맹국별 생산할당제가 도입되면서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GSP가 유명무실화하면서 드디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985년 7월 SWING PRODUCER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시장점유율 확대정책에 따른 증산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OPEC는 가격카르텔로부터 생산카르텔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각국이 증산경쟁에 참여하면서 QUOTA 위반이 상례화하였고, 석유공급 과잉에 따라 자연히 시장원리(MARKET MECHANISM)가 작동하게 되었다. 1987년 2월에는 18\$/B 고정가격제가 도입되었으며, 그 이듬해 2월에는 시장가격연동에 의한 가격설정 방식으로 전면 이행되었다.

그후 이란·이라크전쟁, 1989년 알라스카 및 북해 유전사고, 1990년 페르시아만 전쟁등 사건이 있을 때마다 유가는 다소간 등락을 보이기도 했으나, 국제 석유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과잉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된 약세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하여 OPEC는 지난달 말에 개최된 각료감시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생산량감축에 합의하였으나, 전세계적인 수요부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지난 9월 13일 이스라엘과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팔레스타인 자치에 관한 평화협정에 서명, 중동평화의 역사적인 새 장을 열었다. 이날 양

제4차 중동전쟁과
이란의 회교혁명은
석유위기를
촉발시킨 계기는
되었을 지언정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었다. 이점은
향후 있을지도 모를
제3차 석유위기의
개연성을 검토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측이 서명한 평화협정은 요르단강 서안 에리코市와 가자지구에 대한 제한적인 자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상호의 존재와 생존권을 인정하고 공존을 위한 제일보를 내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대민족과 아랍민족이 생존을 건 투쟁을 간단없이 되풀이해 온 3000년간의 역사에서 보면 매우 값진 진전이라 생각된다. PLO가 결성(1964년 5월)된지 30년만에, 그리고 제 4차 중동전쟁 이후 20주년을 맞는 오늘 이와 같은 사태의 발전을 보는 느낌이 새롭다.

제 1차 석유위기의 계기가 된 중동의 국제정치상황에 크게 일변하고 있는 한편 석유를 둘러싼 사정은 어떠한가. 메이지의 시대, OPEC의 시대, 석유 SECURITY의 시대, 자유경쟁의 시대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해 온 국제석유시장에서는 특히 1980년대에 들어 석유기업의 대형 매수·합병,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 석유선물시장의 급성장등 변모를 겪고, 최근에는 산유국·소비국 대화에 의한 석유가격 안정화 지향, 수직통합체제의 재구축, 산유국과 대형 석유회사의 합작사업 추진등 새로운 시도들이 눈에 띄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IEA 사무총장이 10월 2일 걸프지역 국가들의 정치 불안, 러시아등 구소련지역 국가의 혼란, 현재의 원유보유고등을 볼 때 또 다시 석유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고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석유위기 발생의 조건을 고려할 때 금후 가까운 미래에 제 1차, 제 2차와 같은 석유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어 온 상황의 단순한 연장선상에 석유 및 에너지의 장래가 펼쳐질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그 미래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시대의행의 명확한 분절이 언제 일지,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명명해야 할 것인가는 미래학자의 연구가, 보다 정확히는 시간이 결정해 줄 문제이다.

근래 들어 누구나가 초미의 해결과제로서 환경문제를 들고 있고, 이에 대한 의식과 관심의 확산속도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의 차원을 지나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생존의 차원으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석유 또는 에너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

과거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얼마나 안정적·경제적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문제를 국한시켜서는 앞으로는 에너지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편리성과 쾌적함을 무한히 추구해 가는 인간의 욕구에 부합되는 에너지원과 에너지 활용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1차, 제 2차 석유 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제 3차 석유위기, 에너지위기를 우리 목전에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의 석유공급과잉 탓에 불과 십수년전에 있었던 석유위기를 까맣게 잊고 너무도 쉽고 안이하게 에너지 문제를 대하고 낭비를 일삼는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위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제3차 석유위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

과거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얼마나
안정적·경제적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문제를
국한시켜서는
앞으로의
에너지문제를
풀어나갈수 없게
되었다.